

##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두 노스님의 결계

19일부터 시작된 이번 동안거 결계(結界)에도 6대 총림을 비롯한 90여 선원에서 2천여 수좌들이 일제히 '문없는 문'의 빗장을 열기 위해 석달 간의 안거에 들어갔다. 불초(佛圖)의 해명을 잇기 위해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에 들어간 스님들은 주로 해기왕성한 20~40대의 수좌들. 젊은 스님들도 감당하기 힘든 동안거에, 세랍 80에 가까운 두 노스님이 까마득한 후학들과 함께 안거에 들어 귀감이 되고 있다. 칠불암 운상선원에 방부를 들인 지용 노스님과 봉암사 태고선원에서 결제한 종안 노스님이 그분들이다.

화엄사 선덕 지용(77) 스님은 19세에 금강산 마하연에서 출가, 여태까지 주지 소임 한번 맡지 않고 풍도사, 해인사, 화엄사, 대흥사, 봉암사 등에서 수행에 전념해 왔다. 하지만 스님은 아직도 얻은 바가 없다며 몸살이 겹쳐 다닐 수 있을 때까지 전국의 도량을 돌며 수좌들과 함께 참선 수행에 매진하는 게 남은 소망이라고 말씀하신다.

종안(78) 노스님은 40세의 늦은 나이에 득도, 지리산 백운산 등지의 토굴과 해인사 월명사 수도암 칠불암 봉암사 등 선방을 돌며 정진했다. 5년 전, 태안사 부속 암자인 가운암을 짓고 토굴 정진을 해 온 스님은 "무심의 경지는 여여하나, 확실히 오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랫동안 정진해 온 봉암사로 다시 들어갔다.

평생 해계가 따로 없이 결계해 온 두 노스님처럼, 묵묵히 한국 불교의 선맥을 잇고 있는 어른 스님들은 한 두 분이 아니다. 그리고 3년째 남국선원 부본원에서 배관(配管) 정진중인 성호 스님과 현진 스님, 불련한 몸으로 봉암사 선방에 들어간 전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설성 스님 등 노스님들의 원력을 이어받은 중진 스님들의 용맹정진 역시, 불자들의 원희심을 불러일으키는 '참 불사' 일에 분명하다.

김재경(취재2부 차장)

###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제주 전북: (063)255-2274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화: (02)937-5679 강원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양양: (055)353-1196

## ‘서울불교전문강원’ 내년 개설

교육원 부설 전과목 한문원전으로...일반인도 수강 가능

강원의 한문원전 교과과정을 스님과 일반인이 함께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원장 무비스님은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뜻있는 종회의원 스님들의 요청에 따라 강원의 전 교과목을 한문본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서울불교전문강원'을 서울에 개설키로 했다"며 "빠르면 내년 초부터 스님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서울불교전문강원은 <치문>에서 <화엄경>까지 강원의 전 교과목을 과목별로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강사는 무비스님을 비롯해 월운종선사 조실, 지관(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종범(중앙승가

6개월~1년 코스... 빠르면 내년초 부터

수료 스님에겐 주지연수교육 면제 등 혜택

대 총장 스님과 원로사인 이원섭 씨 등 당대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한다는 게 무비스님의 복안이다. 교육원은 강의실 확보를 위해 조만간 동국대학교 협의할 계획이다.

강의는 주 1회 90분짜리 두 강의로 진행하며, 강의 기간은 과목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코스가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을 수료하는 스님들에게는 장학금 지급은 물론 본말사주지연수교육 면제, 3급 승가교시의 우대기준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을 줌으로써 보다 많은 스

님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문강원은 교육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운영돼 일반 교양대학과는 완전히 차별화된다.

교육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조만간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세우고 강사 섭외, 개강 홍보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불교전문강원 개설은 근래 들어 원전 강의에 대한 스님과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 상당

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 원전 강의에 목말라 있는 불자 지식인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들을 통해 경전을 일반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禪) 위주의 포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 경전을 중심으로 한 포교가 가세한다는 점에서 포교 다변화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육원장 무비스님은 "서울에 불교전문교육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중앙종회의 의견에 따라 이런 계획을 하게 됐다"며 "서울 불교전문강원은 강원의 교육시스템을 일반에게 공개한다는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

임연태·한명우 기자

## 19일부터 동안거... 2천여 스님 90여 선방

11월19일부터 3개월간 전국 90여 선방에서 2천여 스님들이 일제히 동안거에 들어간다. 조계종 중앙종회법정에서는 동안거 결계를 맞아 수행납자들의 분발을 격려하는 법어를 14일 발표했다.

법정스님은 법어에서 "재방선원에 온집한 출력대장부인 결계대중들은 결단 있는 의지와 비장한

용기를 가지고서 모든 방편들을 발로 차서 처부수어 버려야 할 것"이라며 "당장 그 자리에서 불조(佛圖)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서 앞으로는 일체경계가 있음을 보지 않고 안으로는 자기가 있음을 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어 2면, 전문은 buddhanews.com) 한명우 기자

## “해인사 ‘신판가’ 철거하겠다

노 문화재청장, 훼손경관 과학적 보수

1972년 설치된 해인사 신판가가 경관보존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본지 395호 1면 기사 참조)에 따라 문화재청은 12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키로 결정하고, 신판가의 경관들은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통해 재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노태성 문화재청장과 경관 문화재위원들은 9일 장경각을 찾아 관계자의 현장설명 듣고, 경관 손상문제의 진위여부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노 청장은 "일번부 신판가의 경관 배치가 주원인으로 통풍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문화재청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해인사로 파견 정확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앞서 문화재청은 8일 '훼손된 경관 및 판가의 보수를 위해

여 해인사와 긴밀한 협조하여 1997년부터 합동기술지도단의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제기된 훼손경관에 대한 보존과학적인 보수,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있는 판가의 교체 및 보수, 경관의 이물질 제거, 생물학적 피해예방을 위한 핀전 혼종소독 등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밝혔다.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해인사 대장경관의 과학적 보존사업시행과 병행,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1998년부터 시작된 전체 대장경관의 기록화 및 영구보존을 위한 DIB구축을 2005년까지 완료함으로써 경관의 안전한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원우·박원규 기자

## 영강 7년명 금동광배·금동미륵 반가상

## 반세기만에 서울서 다시 '한 몸'

북한 고구려유물 250점

12월 6일부터 특별전

남한의 금동미륵반가상(국보 제118호)과 북한의 국보 문화재 '영강(永康) 7년(551)명 금동광배'가 서울에서 반세기만에 상봉한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은 다음달 6일부터 내년 3월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특별전 시장에서 '특별기획전 고구려-평양에서 온 고분벽화와 유물전'을 연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영강 7년명 금동광배 '영가 7년명 금동삼존불' '해동을 무늬 금동장식품' 등 북한의 국보급 유물 4점이 첫 선을 보인다. 또 실물크기로 재현한 벽화 고분 5기와 북한에서 제작한 실물모형의 공개토대 왕릉비, 고구려 무덤벽화 모사도 61점, 평양인대에서 출토된 괴면막새기

류 진품 유물 30여점을 포함해 북한의 고구려 유물과 유적 250여점이 전시된다.

특히 6세기 후반 고구려에서 제작돼 금동미륵반가상의 것으로 추정돼 왔던 '금동광배'와 호암미술관의 '금동미륵반가상'이 다시 한 몸을 이뤄 사유하는 모습은 이번 전시회가 지닌 의의를 함축할 것으로 보인다.

문명대 교수(동국대 미술학과)는 "1944년 평양시 평천리에서 발굴된 금동미륵반가상을 당시 평양에 살던 김동현씨(문화재위원)가 현장에서 구입해 월남할 때 가져왔기 때문에 광배와 이산가족이 된 것"이라며 "두 유물의 발견지가 같은 것은 사실이나 배모양의 주형광배를 반가사유상 광배로 사용한 예가 없어 제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이번 전시로 확인이 가능해 졌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김주일 기자 kimj@buddhapia.com



호암미술관 소장 '금동미륵반가상' (아래 오른쪽)에 북한의 '영강 7년명 금동광배' (아래 왼쪽)를 얹어 합성한 사진.



##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 연말까지 사은행사... 관음보살도 증정

"신행의 동반자" 현대불교를 보다 편리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구독료 자동이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하시면 지로용지를 들고 입금이 은행이나 우체국으로 가지지 않게 되어 보다 편하게 현대불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 독자가 되시면서 구독료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신청하시는 분이나 기존 독자가 새 구독료 (월 5000원)로 자동이체 하시는 분에게는 사은의 뜻으로 미려한 색감의 16도 정밀 인쇄된 관세음보살도림의식 작. 27cm×37cm 시중판매가 2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이 보살도는 그대로 벽에 거시거나 액자에 넣고 보시면 수준 높은 예술품이 됩니다.

- 자동이체 신청방법
- ① 독자번호(성명,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이해 뒷면 입자를 전화로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 ② 자동이체 신청가능 은행: 모든 은행 및 우체국(11월 시행)
- ③ 이해 희망일: 매월 5. 25일 중 택일

▶ 자동이체 문의·신청 전화 (02)737-0090(직통) (02)737-8881(대표)

현대불교신문사

## “스님·불자님”

## 부다피아 외환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부다피아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시금이 적립됩니다.  
스님, 종무원, 불자 누구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외환카드 회원도 추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 부다피아카드만의 특전

- 동국대의료원 산하 5개 약·한방 병원 진료비 5-20%감면
- 불교전문서점 '어시아문' 할인
- 불교전문쇼핑몰 '마하몰' 할인
- 전국 유명호텔, 콘도 최고 88%할인
- 유명백화점 및 할인점 무이자 할부 2-3개월
- 외식업체할인서비스(까르네스테이션 등)
- 국내외 항공권 3% 할인
- 현대정유 오일뱅크 리터당 30원 적립
- 물품구매 누적금액에 따라 1,000원당 3원에서 10원 적립

현대불교신문사  
외환카드

### 가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불교 카드 사업단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직통)02-725-1132  
대표)02-737-8881

